



2022년 3월 23일 | Equity Research

휴대폰/부품

투자의견

Overwe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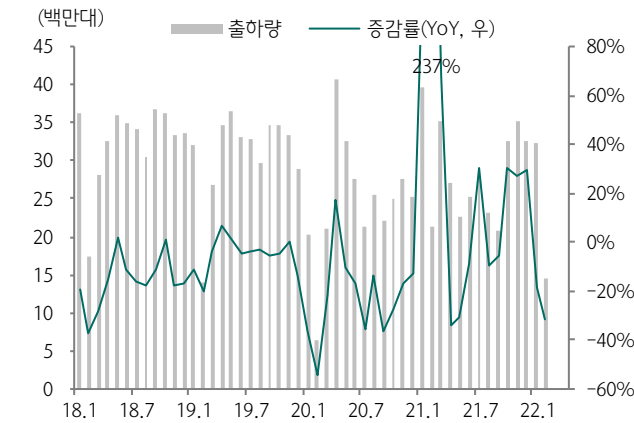
Analyst 김록호

02-3771-7523
roko.kim@hanafn.com

2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: 예상대로 부진. 재고 감소 확인 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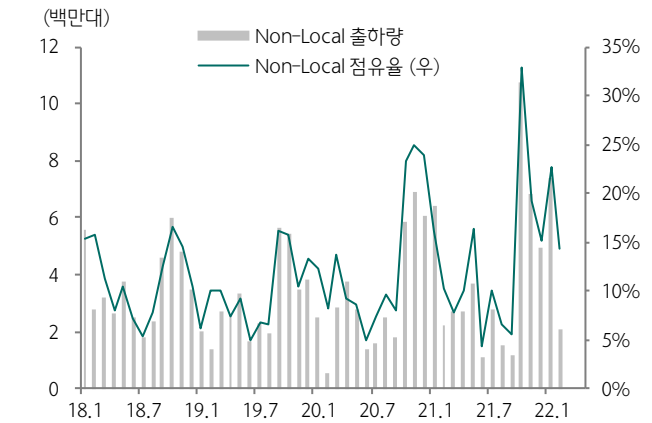
- 스마트폰 1,455만대(YoY -32%, MoM -55%)
핸드셋 1,486만대(YoY -32%, MoM -55%)
 - 중국 스마트폰 2월 출하량이 1,455만대로 전년동월대비 32%, 전월대비 55% 감소
전년 및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큰데, 채널 재고가 많아 출하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고, 춘절 연휴 영향임
 - 2월에 출시된 스마트폰 신모델은 22개로 전월 28개에서 소폭 감소
그 중 5G 신모델은 15개로 68% 비중을 차지. 5G 신모델의 최근 12개월 평균 비중은 56% 수준
 - 5G 단말기 출하량은 1,137만대로 전월대비 57% 감소했고, 스마트폰 중에서 5G 비중은 77%
21년 3월에서 10월까지 70%대에 머무르다가 11월에 80%대로 진입한 이후에 꾸준히 80% 이상의 비중이 유지되었는데, 오랜만에 70%대로 축소
 - iPhone이 포함된 Non-Local 핸드셋 출하량은 208만대로 전월대비 72%, 전년동월대비 5% 감소
전월대비 72% 감소하며 점유율은 14%로 하락
다만, 전년 동월대비로는 5% 감소에 불과해 작년 2월 점유율 10%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
아울러 아이폰 12는 10~11월에 출시되어 예년보다 1~3월 출하량이 양호했던 모델
 - 2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춘절 연휴 영향과 더불어 예상대로 부진
중국 로컬 업체들의 재고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이 확실하게 감소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
Apple의 전월대비 감소폭이 크긴 했지만, 전년 동월대비로는 여타 업체보다 선방하고 있음
중국 시장의 재고조정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제 갈 길을 묵묵히 걷고 있음
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3~4월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음
다만, Counterpoint의 2월 판매량과 비교해서 유통채널 재고의 유의미한 축소가 확인되면 출하량 반등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음

그림 1.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 추이



자료: CAICT, 하나금융투자

그림 2. Non-Local 출하량 추이



자료: CAICT, 하나금융투자

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

-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

- 기업의 분류

BUY(매수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
Neutral(중립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-15%~15% 등락
Reduce(매도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-15% 이상 하락 가능

- 산업의 분류

Overweight(비중확대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
Neutral(중립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~15% 등락
Underweight(비중축소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 이상 하락 가능

투자등급	BUY(매수)	Neutral(중립)	Reduce(매도)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율	95.49%	4.51%	0.00%	100%

* 기준일: 2022년 3월 19일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록호)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- 당사는 2022년 3월 2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
-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록호)는 2022년 3월 2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